

The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News 2019년 10월 9일 수요일 제786호



한인 커뮤니티의 자랑인 스탠 조(Stan Cho ; 한국명 조성훈)의원이 협회 신재균 회장(왼쪽), 조합 심기호 부이사장과 편의점 업계 현안 문제를 놓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관련 기사 14면)



www.okba.net Publisher : Jae Gyun Shin / Publication Mail Agreement No : 41140510 Return Undeliverable Canadian Address to :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169 The West Mall, Etobicoke, ON. M9C 1C2 Tel.(416)789-7891 Fax.(416)789-7834

# PROLINE

POINT@SPREAD

PRO-LINE **PROPS** 

## 빅히트,통큰상품 그리고 더욱더 큰 당첨금!

## 미식축구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가을에는 빅 리그가 시작되면서 여러분의 매장은 더욱 바빠집니다. 지난해의 경우, 미식축구 한 종목에서만 소매업자에게 지급된 수수료가 약 **\$380만**에 이르렀습니다!

루칸의 트로이 씨는 POOLS 게임에서 Football Pools Card #87 로 \$561,303을 땄습니다. 그는 루칸의 메인스트리트에 있는 Lucan Convenience 에서 이 복권을 구매했습니다.

그는 경기를 시청하고 휴대폰의 OLG 복권 앱(Lottery App)으로 복권의 당첨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화면에 뜬 것을 믿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껐다가 다시 확인했죠." 그가 웃으며 말합니다.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 스포츠 베팅 한도

OLG 의 스포츠 베팅 한도는 소매업자당, 스포츠 복권 상품당, 고객당 (또는 단체고객 당) 1일 \$100 이라는 것을 유념하십시오. 이 정책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스포츠 복권 판매 정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복권단말기 운영이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소매업자정책매뉴얼(Retailer Policy Manual) 제4.13절 스포츠 베팅 한도(Sports Wagering Limits)를 참고하십시오.

OLG는 DART(Data Analytics and Retrieval Technology) 시스템을 사용하여 복권단말기의 활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합니다.이신속한모니터링및보고능력은저희OLG가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을 수 있는 소매점을 직접 방문할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OLG는 스포츠 복권 상품 거래를 매일 감시하며, 베팅 한도가 초과될 경우 즉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장의 복권 담당 종업원이 이 정책을 숙지하고 절대적으로 준수하도록 하십시오.







Ontario's Lottery & Gaming

####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 OKBA 회 장 : 신재균 (Jae Gyun Shin) OKBA 부회장 : 송명현 (Myeong-Hyeon Song)
- 홍보팀 : 실장 김광일 (Ted Kim) tongilisysj@yahoo.com
- 사업개발팀 : 이주녕 (Brian Lee) brianjn1108@okba.net
- 회계팀 : 김세환 (Justin Kim) accounting@okba.net
- 디자인팀 : 현미영 (Mimi Hyun) mimihyun@okba.net
- 본부협회 : Tel (416) 789 7891 / Fax (416) 789 7834
- 이사회 : 이사장 이두승 / 부이사장 신영하
- **감사위원회** : 박영하 / 송구영 / 이만석
- 분과위원회 : 장학 분과 / 회칙 분과 / 특별사업 분과 상벌분과 / 선거관리 분과
- **지구협회** : < 광역 토론토 지구협의회 >
  - (ABC 순) Etobicoke 회장 이두승 (416)895-1277 Newmarket 회장 금동진 (905)836-6429 North York 회장 방성덕 (416)221-7091 Peel 회장 이수봉 (905)813-1333 Richmond Hill 회장 김대용 (905)471-8079 Scarborough 회장 엄종호 (416)759-4503 Toronto East 회장 김종범 (416)363-9404 Toronto West 회장 김종범 (416)975-0365 Weston & York 회장 조용상 (416)604-3116
     < 남서부 지구혐의회 >
    - Brant County 회장 김종학 (519)756-0099 Halton & Hamilton 회장 오재근 (905)825-8373 London 회장 오세경 (519)432-6672 Niagara Falls 회장 김홍기 (905)354-1313 Waterloo 회장 최상겸 (519)579-8130 Windsor 회장 윤문성 (519)326-1832 < 동북부 지구 협의회 >
    - Ourham 회장 이현식 (905)579-2500 Huronia 회장 배종민 (705)436-2248 Kingston 회장 이강정 (613)967-9998 Owen Sound 회장 허창훈 (519)323-4311 Peterborough 회장 이경석 (905)373-0569

#### K.B.A. 협동조합

- K.B.A. 운영 이사장 : 신영하 (Youngha Shin) K.B.A. 부이사장 : 심기호 (Kenny Shim)
   ■ K.B.A. 총괄부장 : 권혁선 (Hyuk Sun Kwon)
   ■ K.B.A. 차무장 : 배 줄리아 (Julia Bae)
   ■ K.B.A. 협동조합 사무실 : Tel (416) 789 - 7544 Fax (416) 789 - 5013
   ■ K.B.A. 협동조합 매장 : Tel (416) 867 - 1444
- K.B.A. 운영이사 : 김대영 (Dae-Young Kim) (가나다 순) 송명현 (Myeonghyeon Song) 신재균 (Jae Gyun Shin) 이두승 (Doo-Seung Lee) 이만석 (Man Suk Lee) 허창훈 (Chang-Hoon Huh)
  ■ K.B.A. 감사 : 백사일 (Sah-Yeal Paik) (가나다 순) 장해민 (Hae Min Jang)



## CONTENTS

04 - 07, 10 / 10/3 예·결산 정기이사회 온주봉사상 행사

- 08 / 여성의 밤 사진 및 동영상 관련 정보
- 09 / 스와롭스키 쥬얼리 15% 가격으로 공급
- 11 / OCSA 이사회, 숨가쁜 현안 문제들 7-Eleven 캐나다, 커피 공짜
- 12 / 조합 고객감사의 날 10월 23-24일 FCT 신제품 설명회
- 13 / 조합 고객감사의 날 무료 쇼핑 쿠폰(\$25)
- 14 / 담뱃갑 포장 통일화 정책 대비 스텐 조 의원, 협회 위한 든든한 대변자
- 15, 18 /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 와중
- 16 17 / '배달'만 하는 가상의 편의점 협회 웹 주소 변경 예정

19 / DIRECTORY

20 ~ 23 / K.B.A. 협동조합 10월 스페셜

## 10/3 **예 · 결산 정기이사회**

## 결산 수지 거의 균형 맞춰



2018/2019회계연도 마지막 정기이사회(4차)가 지난 10월 3일 (목) 협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오후 2시 부터 약 4시간에 걸쳐 진행된 정 기 이사회는 예.결산 심의와 내부 및 외부 감사 보고를 주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로써 지금처럼 4회의 정기 이사회로 운영되기 전에는 1년에 1회밖 에 없는 이사회였다.

총 37명의 재적 이사 중 21명의 참석으로 성원 발표가 있고 나서 회의 중 최대 참석인원은 27명까지 늘 어났다. 이두승 이사장의 주관하에 진행된 회의는 이사장의 이사회 주요 업무 보고와 회장의 집행부 업무 보고로 이 어졌다. 중간 중간에 질문이 나오면 즉석 답변도 곁들였다. 이사회 활동 으로는 산하 분과위원회인 회칙분과, 상벌분과, 장학분과, 선거관리분과 위원들의 고유 역할을 잘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특별사업분과위원 회의 활동이 전무한 것은 내부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다.



이사회를 통해 조합 건물 인수를 단계적으로 밟아나간 점도 주목할 대 목이었고 격년으로 홀수의 해에 치러지는 본부협회 정.부회장 선거 준비 를 위해 선관위가 분주히 움직였던 것도 의미가 큰 활동이었다. 다만 선관 위의 준비에도 불구하고 이번 26대 회장 선거는 경쟁자가 없이 신재균 현 회장이 단독으로 후보 등록을 해 별다른 후속 활동을 할 이유가 없어졌다.

지난 회계연도 집행부의 활동으로 가장 집중된 부문이 정계 인사들과의 유대관계 강화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편의점을 비롯한 소상공업 진흥을 목 표로 친비즈니스 정책을 표방하는 온주 집권 여당인 보수당과의 밀월 관 계는 협회가 역대 그 어느 정권과도 가져볼 수 없었던 돈독함을 과시했다. 더그 포드 수상과의 몇차례 만남은 물론 재무부로부터 면담 요청을 받 아 여러 차례 임직원이 재무부 본청이나 별도의 장소에서 심도있고 세부 적인 현안 문제 해결책을 자주 건의한 바 있다.

포드 수상이 직접 출연하는 공익광고 촬영 현장으로 협회 회원 업소를 제공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런 관계의 원만한 사다리 역할을 해 준 것은 누가 뭐래도 조성준 노인복지부 장관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한인 밀집 지역인 윌로우데일을 지역구로 한 스텐 조(한국명 조성훈)의원의 측면지 원도 한몫 거들었다. 한국계 정치인의 정계진출이 가지는 의미가 얼마나 다대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실감하는 계기라고 하겠다.

주요 대정부 활동을 중심으로 한 지난 회계연도 업무 보고는 캐나다한 인상공실업인총 연합회(UKCIA)를 육성 발전시켜야 할 당위성의 강조로 이어졌다. 현재 일부 공급사들이 온타리오 차원이 아니라 전국 단위로 제 휴관계를 맺으려 하는 입장 전환이 감지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OKBA를 포함한 전국조직인 UKCIA를 내세워 대공급사 대 응책을 구사해 위상에 걸맞는 대접을 받도록 하자는 포석이다. 다시 말 해 UKCIA가 화목 차원의 상징적 한인 전국 조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 라 실리추구 측면에서도 제 구실을 해보자는 의미다. 회장은 그런 계기의 일환으로 이 달에 모국에서 있을 한상대회에는 UKCIA의 당연 겸직인 총 연 회장 자격으로 참가하고 정기총회도 한상대회에서 만나서 치를 것이 라는 점도 밝혔다.

조합 건물 매각으로 인한 조합 경영 여건도 짚었다. 실협에서 받은 매각 대금으로 은행 빚을 가리고 여유 자금은 약 150만 달러가 되며 이를 동포 사회의 두 은행인 신한은행과 외환은행에 각각 반반씩 정기예금을 들어 놓았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마땅한 제 2의 도매상을 찾을 때까지는 신 중하게 접근할 것이며 당분간은 은행에 맡기고 안정적인 자금 운영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 사업과 관련해서는 스와롭스키 쥬얼리 사업을 5년 만에 중단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 제약조건을 자세히 설명하며 회원들의 이해를 구했다. 12만 달러가 넘는 재고를 결손처리함이 불가피하다면서 향후 어떤 신규 사업을 하든 재고를 안고가는 사업은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편의점 주류판매와 관련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활발한 대정부 로비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정부여당과의 밀착 접촉도 결국은 편의점 주류판매 를 공약으로 내건 현 정권의 정책을 열성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의미를 가



지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1인 시위는 물론 그 많은 정책 설명회에 빠짐없이 참석해 협회의 입장을 피력하는 열성을 보였던 것이다. 신 회장은 "최근 ICBO를 통해 발표된 신 규오픈 명단과 관련해 일부 회원들이 영업권을 따내고 이미 판매에 들어간 곳도 있는데 이를 단 순히 운이 좋았다고 치부해버리지 말고 회원들이 수많은 세월동안 대정 부 요구를 부르짖은 노력의 산물임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런 심중과 편의점 업계의 실상을 잘 이해하고 있는 조성준 장관 역시 각료회의와 같은 공식적인 자리이든 사적인 자리이든 틈나는대로 동료 의원이나 장관들에게 협회 더 나아가 편의점 주류판매 허용이 가지는 의 미를 강조하며 측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2년을 쉬었다가 올해 다시 열린 여성의밤 행사는 전반적으로 저비용 고 만족도를 거둔, 요즘 자주 사용하는 표현으로 가성비(價性比) 높은 행사 였음을 확인했다며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 했다.

#### 내부감사

업무 보고에 이어 9 월 중 보름 이상 실시한 내부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만석 감사위원장이 제출한 자료에서 개선을 위한 권장 또는 지적사항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OKBA골프토너먼트는 지구협별 참여도의 차이가 심하다. 지구협회 장의 분발과 독려로 행사의 활성화를 이뤄야 한다.

▶ 여성의밤은 내실있는 행사로 호평을 받을만 했으나 참가자 전원에게

증정하는 기념품이 빈약했다.

▶ 분과위원회 모임을 비롯한 협회의 다양한 회의를 위한 SNS활용도를 제고토록 한다.

▶OKBA프로그램스토어를 비롯한 사업들에 대해 회원의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 쥬얼리 사업은 외부감사의 권고대로 재고는 결손처리하고 손실 최소 화를 위해 다양한 소진책을 강구한다.

▶기존 6명의 직원이 4명 체제로 운영되는 것이 장기화될 수는 없으므 로 적정 인력방안을 수립한다.

#### 외부감사

이방록 회계법인의 이방록 회계사와 이주영 회계사가 번갈아 가며 보고를 했다. 보고서를 기초로 협회의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2018/2019 회계연도; 2018년 9월 1일 ~ 2019년 8월 31일) 협회의 총 자산은 7,791, 415달러다. 대부분은 조합 웨스트몰 건물 구입 에 따른 고정 자산으로 약 620만 달러이다. 현금자산은 약 150만 달러이 며 협동조합 투자(우선주 + 보통주) 70,100달러가 있다. 부채는 역시 조합 건물 구입 부족분 은행 융자금 220만 달러가 가장 큰 몫을 차지한다. 순자 산은 약 510만 달러이다.

수지 측면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급사 리베이트 약 54만 달 러에 광고수입, 행사 협찬금 등을 포함해 약 132만 달러(\$ 1,327,313)의 수 입이 발생했다. 지출은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관리비와 회원 서비스 및 지 원비 등으로 약 110만 달러(\$1,080,309)를 기록했으며 이에 금년 처음으





로 조합 건물을 소유했기 때문에 감각상각비(amortization)가 124,000여 달러로 잡혔다. 물론 이는 장부상의 수치일 뿐이다. 여기에 쥬얼리 재고 125,000달러를 결손처리했기 때문에 이를 지출로 합산한 경우 지난 회계 연도 협회의 수지는 2,417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수입과 지출이 거의 들 어맞는 경영을 한 셈이다.

#### 사업계획 및 예산

2019/2020 회계연도 주요 사업은 프로그램스토어 사업을 중심으로 광 고사업과 회원 교육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회계 연도 마감인 지난 8월 31일 기준으로 동 프로그램 가입 회원은 56개 (이 날 이사회 개최일인 10월 3일 기준으로는 60개)이며 내실있는 업소로 엄 선해 2020년까지 15개 업소를 추가하는 것이 목표다. 이 사업을 주축으로 광고 수익의 추가 창출과 스폰서 직접 발굴에 매진할 계획이다. 또한 대 외적 위상 강화 차원에서 캐나다한인상공실업인연합회(UKCIA)의 기능 을 제고하고 친목에서 더 나아가 전국적 면모를 내세운 대정부 로비력을 강화해 실익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예산은 1,332,400달러이며 전 회계연도 1,263,500달러 대비 5.4% 증가 했다. 전 회계연도 결산 대비로 보면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금액으로 결 산을 예산 수립에 그대로 반영했다고 보면 된다.

이상 본 안건들을 모두 마무리하고 원안대로 모두 정기총회에 상정키로 결의했다. 기타 토의시간에는 이사회 회칙분과위원회에서 온라인을 통 해 결의한 정관개정안을 다루었으며 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몇차례 토 의한 끝에 마련한 선거시행세칙 개정안도 안건에 부쳤다. 이하 핵심만 소 개하면 표와 같다.

#### 〈정관개정안〉

<b>제 15조 지구협회 발족</b> 제 1항 : 새 지구협회 발족과 지구 협회 관할 지역의 재조 정 및 재 검토에 관한 사항은 <b>회원수 50명 을 기준으로</b> 지 구협회장 회의를 거쳐 이 사 회에서 인준받는다.	새 지구협회 발족, 통합, 폐지 등 조직 구성의 변화에 관한 사항은 관련 지구협회장 회의 를 거쳐 이사회에서 인준받는 다. (*회원수 50명 ··· 부분을 삭제함)
<b>제 12장 탄핵</b> 제 33조 제 3항 : 본 회의 탄 핵은 정기 또는 임시 총회에 서 이를 실시하며 <b>재적 20%</b> <b>의 성원으로</b> 등록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본 회의 탄핵은 정기 또는 임 시 총회에서 이를 실시하며 정회원 재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재적 인원 20%의 성원··· 부분을 삭제함.)

〈10면에 계속〉



\*Ask for Free Zippo Display

BONGS, DAB RIGS, BUBBERS, RECYCLERS, HAND PIPES, E-CIG, VAPORIZERS, GRINDERS, DUGOUTS, SCALES, SMOKING PAPERS, ALL KINDS OF SMOKING ACCESSORIES ZIPPO LIGHTERS, and ETC.

#### **Business Hours**

Monday to Friday 9.00am - 5.00pm Saturday 9.00am - 2.00pm Closed on Sunday and Holidays

Cash & Carry Store 606 Magnetic Dr Torono, ON M3J2C4 onetradingltd@gmail.com T. 416 661 6664 F. 416 661 6668



▲ 유튜브에서 '토론토호수마을#8'이라고 치면 여성의밤 행사 승선부터 하선까지의 3시간 유람 하이라이트 장면을 감상할 수 있다.

↗ 난 광복절인 8월 15일 열린 크루즈 선상 여성의밤 행사 때 포토 존 에서 찍은 개별 기념 사진이 협회 웹사이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총 136 매)

각각의 사진에 일련번호가 적혀 있으니 원하시는 분은 사진 번호와 사 진을 송부받을 이메일을 협회 담당 직원 이메일 mimihyun@okba.net 으로 알려주시면 해당 사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번 행사 항공권 4매를 지원했던 임폐리얼측이 사진으로 출 력해 프레임에 넣어 각 업소별로 방문해 전달하려고 기획했으나 내부 사 정상 여의치 않아 이메일 송부로 갈음하는 것이니 회원 들의 양해를 바랍 니다. 협회 웹사이트는 www.okba.net이며 초기화면 상단 중앙의 큰 띠 광고에서 'enjoy the ladies' night'을 누르면 사진 모음을 보실 수 있 습니다.

한편, 여성의밤 행사는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도 하이라이트 장면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키워드 "토론토호수마을#8"이라고 입력하면 나옵니다. 또 현재 교체 중인 협회의 새 웹사이트 주소 www. okbacanada.com으로 들어가면 초기화면에 바로 여성의밤 동영상이 나와 이를 클릭해도 동일한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구독을 누르고 좋아 요를 눌러주시면 본 동영상 촬영과 제작을 위해 애써주신 정윤모 회원이 아프리카 선교 후원금 마련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고 하니 많은 협조 바 랍니다.■





스와롭스키 쥬얼리 사업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개선책을 강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원거리로 인한 마켓팅 및 후 속 서비스가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사업을 중단하 게 됩니다. 현재 협회는 상당한 재고를 안고 있어서 손실을 최 소화하기 위해 가입 회원들에게 파격적인 가격으로 마무리 세 일을 합니다.

공급가격은 소비자 가격의 15%입니다. 쉽게 말해 기존에는 협 회로부터 50달러에 공급받아 손님들에게 100달러에 판매하는 100% 이윤 구조였다면 이번 마무리 세일은 15달러에 공급받는 것입니다.

물론 회원들은 이 가격으로 공급받아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나 내년 발렌타인 데이 등 이벤트 시즌에 큰 할인가로 손님을 끄는 가격 정책을 임의로 구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스와롭스키 사업 가입 회원들에게는 개별 서신을 통해 이 사실을 알렸고 일부 회 원들이 상당한 물량의 쇼핑을 하셨습니다. 아직 구입하지 않은 회원들은 서둘러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일인만큼 물량을 넉넉히 확보해 업소 분위기 쇄신과 타 상품 구매 확산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할 것을 권합니다. 인기 상품은 여전히 물량이 많이 확보된 상태이며 귀걸이, 목걸이, 팔 찌 이외에 고급 취향의 브로치와 반지도 다량 있습니다.■

정부지원 임대주택         9 일시: 10월 4일 (금) 오전10시30분 - 오후12시         9 장소: KCWA 배더스트·편치 사무실         9 당당: 정착상당원 강영옥 (문의: 416-340-1234)         9 내용: 1. 정부자원 임대주택이이만?         2. 노인아파트란?         3. 정부지원 임대주택의 신청자격, 조건 및 신청절차         4. 정부지원 임대주택의 종류와 위치         5. 실비복지 아파트 정보	나를 말하다 - 여성으로 살아가기 © 일시: 10월 10, 17, 24, 31일 (목) / 총 4회기 오전10시 - 오후12시 © 장소: KCWA 배더스트-편치 사무실 © 담당: 가정상담원 정유연 (문의: 416-340-1234) © 내용: 1. 인권과 남녀평등 2. 사례나누기 3. 스트레스 관리와 자기 이해	년 10월 프로그램 오주 대학/전문대학 서 작성 안내 월 24일 (국) 오후6시 - 오후8시 NA 배더스트·편치 사무실 상담원 최성혜 (문의: 416-340-1234) 대학 진학 준비 시기와 요형 공사 작성 및 진행 과정 문화산 사이트: eINFO, ontariocollege.ca DUAC / OCAS 사용하기 신청서 작성의 실제
월컴 투 캐나다 - 캐나다 시민권시험 준비반 ■ 일시: 10월 10일, 17일 (목) / 총 2회기 오후6시 - 오후8시 ■ 장소: KCWA 배더스트-핀치 사무실 ■ 당당: 정작상당원 박민희 (문의: 416-340-1234) ■ 내용: 1. 첼컵 투 캐나다 2. 내가 살고 있는 온타리오 이해하기 3. 캐나다 시민의 권리와 책임 4. 캐나다의 역사, 근현대사, 정부, 사법시스템 5. 캐나다의 성징, 경제, 지리	■ 일시: 10월 22일, 29일 (화) / 총 2회기 오전10시 - 오후12시         ■ 일시: 10월           ■ 장소: KCU         ■ 당당: KCWA 배디스트-편치 사무실           ■ 당당: 가정상담원 김진욱 (문의: 416-340-1234)         ■ 내용: 1. 노인학대에 대한 선입견과 편진, 바른이해           ■ 내용: 1. 노인학대에 대한 선입건과 편진, 바른이해         3. 등	는 영주권카드 갱신 월 29일 (화) 오후6시 - 오후8시 씨A 배더스트·편치 사무실 상담원 김효원 (문의: 416-340-1234) 영주권카드 신형 및 갱신 안내 탄비서류와 진행 실청서 작성의 실제 2019 커피어 내트워킹 개나나다 공공기관
배우자 초청 안내 ■ 일시: 10월 22일 (회) 오후6시 - 오후8시 ■ 장소: KCWA 배더스트-편치 사무실 ■ 당당: 정착상담원 긴효원 (문의: 416-340-1234) ■ 내용: 1. 스폰서십의 의미와 자격 2. 배우자초청 이민 절차 3. 신청서와 구비서류	<ul> <li>■ 일시: 10월 23일 (수) 오전10시 - 오후12시</li> <li>■ 장소: KCWA 배더스트-핀치 사무실</li> <li>■ 담당: 정착상담원 이선경 (문의: 416-340-1234)</li> <li>■ 내용: 1. 모기지 용어</li> <li>2. 모기지 선규 및 갱신</li> <li>3. 모기지 선대:</li> <li>고장 변통 금리 및 개방·폐쇄형 모기지</li> <li>4. 최초 주택 구입, 신규 이민자를 위한 모기지</li> <li>5. 모기지 승인 절차 및 상환</li> </ul>	

#### (7면에이어) 10/3 예·결산 정기이사회

지구협 발족과 관련한 현행 "회원수 50인 기준"은 2000년대 초에 회원수 가 급성장하던 시절에 타당했던 내용이었지만 2000년대 중엽부터 서서 히 감소 추세를 보여 현재 1000여 명 전후로 절반 이상이 줄어든 실정을 감안하면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문구에 지나지 않게 됐다. 이를 삭제하고 현실과 부합하게 표현을 정리한 것이다.

다음으로 회장 탄핵 관련 조항인데 현재 총회의 성원은 재적 정회원의 5% 참석으로 하고 있다. (제 8조 총회의 성립 제 1항 "총회는 정회원의 5% 이상을 정족수로 성립되며…" 그런데 여기서 회장 탄핵은 유일하게 예외 로 의사정족수(회의 성원)를 20%로 규정하고 있어 조건을 지나치게 까다 롭게 했다는 현 집행부의 인식이다. 특별결의로 재석 정회원의 2/3로 일 반 규정보다 엄격하게 한 것은 취지에 맞지만 성원이 5%가 아니라 20% 이면 원천적으로 회의 성립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탄핵규 정이 있으나마나 하지 않겠냐는 해석이다.

따라서 의결 정족수는 현행대로 2/3로 유지하고 의사정족수는 일반규 정대로 5%로 성원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취지를 충분히 공감한 이사들은 전원이 이에 동의해서 원안대로 정기총회에 상정토록 했다. 선거세칙 개정안은 모두 이사와 감사에 관한 사항이며 정.부회장 선거 와는 무관하다. 이는 이미 지난해 정기 총회에서 이사 감사 선출과 관련 한 정관 개정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에 근거해 선거세칙도 모순을 일으키 지 않게 해당 부분을 맞출 필요가 있어 개정하게 된 것이다.

4시간가까운 회의는 6시 무렵에 정관과 선거 세칙개정안을 통 과시키며 마무 리됐다. 한편, 이날 회의 안건 다루 기에 앞서 이두승 이 사장으로부 터 전임이성 호 이사장에 게 감사패가 증 정됐으며 모두가 박수로 환영했다.



#### 〈선거세칙개정안〉

현행	개정안	비고
제 14조 (선거일) ··· 12인의 이사와 ··· 일반 감사 3인은 매 2년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mark>6인의</mark> 이사와	개정 정관에 따름
제 15조 (입후보 등록) ① (등록서류)정기총회에서 선출하는 12인의 이사와 3인 의 감사 후보자는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서류는 다음과 같다. 1.등록신청서 1부(여권용 사1매 첨부) 2. 영주권 또는 시민권 사본 1부 ② (등록기간 공고)정기 총회 개최일로부터 최소한 30일 이전에 등록 기간을 공고해야 하며 최소 10일간의 등록 기간을 설정한다. 선관 위원장은 등록에 관한 제반 사항 을 실협 홍보물(실협뉴스, 웹사이트 등)에 공고한다. ③ 선관위는 유권자가 후보자를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선 거가 실시되는 정정 기총회장의 적당한 위치에 기호 가 명기된 후보자 명단을 게시한다.	제 15조 (입후보 등록) ① 이사 및 감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본 회가 마련한 소정의 등록 신청서(사진 부 착)와 영주권 또는 시민권 사본 1매를 제 출해야 한다. ② 후보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10일 간의 등록 기간을 설정하며 선관위원장은 등 록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실협 홍보물(실협 뉴스, 실협 웹사이트) 에 공고한다. ③ 후보 등록 시 소속 지구 협의회 및 소 속 지구협회와 협의를 거치거나 본인이 임의로 등록을 할 수 있다.	<ul> <li>12인 관련 문구 삭제 하고 불필요하고 번잡 한 절차 규정 문구를 간 략히 정리</li> <li>지구협의회별로 할 당한 2인 이사 및 1인 감사의 후보 등록시 정 관의 규정에 따라 지구 협의회와 조율할 것을 권하는 문안 삽입</li> </ul>
제 17조 (투표) 정기총회석상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 출한다. 제 18조 (당선기준) 득표 순위로 당선자를 정하며 당선범 위내 최소득표 당선자의 득표 수가 동수일 경우 동 세칙 제 9조 2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 19조 (입후보 제한) 동 세칙 제 5조 '입후보 제한' 규정 을 적용한 다. 제 20조 (이의신청) 투.개표와 관련 하여 이의제기가 가능 하나 최종판정은 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제 16조 (투표) ① 각 지구협의회별로 배정된 인원을 충 족시켰을 경우 과반수 인준으로 통과시 키며 후보자 초과 시에는 무기명 비밀투 표로 각 지구협의회별로 배정된 인원을 선출 한다. ②후보자 수가 미달된 경우에는 총회석 상에서 추천받아 인준한다.	현행 17조부터 20조 까 지의 내용이 현실에 맞 지 않아 폐지하고 16조 한개 조문으로 간략히 정리함.

## OCSA 이사회 숨가쁜 **현안 문제들**

#### 주류판매와 베이핑, 최대 화두

온 주편의점협회(OCSA 회장 데이브 브라이언즈) 정례 이사회가 지난 9월 25일(수) 밀튼 소재 래틀스네이크 골프클럽 회의실에서 열렸다. 매 격월로 열리는 이사회의 이번 모임은 편의점 업계의 지형을 바꿀 숨 가쁜 변화의 파고에서 여하한 입장과 태도를 취해야 할 지에 대해 낙관과 고민이 교차하는 회의였다. 이날 논의된 안건 중 가장 의미가 큰 두가지 를 요약 정리해본다.

#### - 편의점 비어와인 판매 -

현재 LCBO를 통해 두차례 외곽 중심으로 문호를 열었으나 GTA지역까 지 포함한 모든 편의점에 문호를 개방하는 시점이 언제가 되느냐는 것은 편의점 업주들에게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린 관심사다. 다행이 현 정부는 편의점 전체에 허용할 것을 이미 작년부터 공약으로 내걸고 단계적 접근 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아 다소 주춤하는 형국이다. 이미 누차 설명했지만 전 자유당 정권이 비어스토어와 체결한 계약을 파기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큰 소송에 그것도 글로벌 다국적 맥 주회사를 상대로 법정 싸움으로 비화될 리스크가 큰 부담이다. 이를 피하 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다각적으로 마련하는데 확실히 전임 빅 피델 리 재무장관때보다 현 로드 필립스 신임 장관이 들어오며 동력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보다 신중히 처리하려는 계산도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연방과의 정치적 유화관계도 잘 이어나가야 하고 오는 연방 총선도 잘 대처해야 할 과제다. 정통한 소식 통에 의하면 늦어도 1년 안에는 모든 편 의점에 허용되지 않겠냐고 귀뜸했다는 것이다. 이를 공고히 하기 위해 지 역구 연방의원이나 주 의원 등에게 편지(이메일, SNS 등)공세를 펼치는 것이 유권자로서 가장 강력한 동원 수단이 된다고 한다. 회의에 참석한 심 기호 조합 부이사장은 협회도 한국계 의원이나 장관 등과 활발히 접촉해 보다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창구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원들과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좌관에게라도 민 원을 넣는 것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한다.

#### - 베이핑 -

현재 편의점의 베이핑 제품 비즈니스에 걸림돌은 베이핑 전문 업체들 과 이들의 결사체인 전국베이핑협회(CVA)이다. 이들은 경쟁관계에 있는 편의점 영업 행태에서 흠질낼 구실을 찾느라 혈안인데 빌미를 주지 않도 록 편의점 업계의 단체들도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를 강화 할 필요성이 있다. 이들은 향이 가미된 베이핑 상품을 전문 베이핑 스토 어에서만 판매하고 편의점에서는 판매 금지를 시키는 쪽으로 여론을 몰 아가고 있고 로비도 이 방향으로 가져간다고 한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는 공정한 대우를 부각시키는 맞불 로비전을 강하게 펼칠 필요성이 지적 됐다. 심 부이사장은 회의를 마친 후 "큰 손들이 일부 빠져나간 OCSA의 현 위상에서 OKBA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졌음을 거듭 느낀다"면서 "좀처럼 맞기 어려운 유리한 국면을 잘 활용해 협회에도 보탬이 되고 전 체 편의점 업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선도적 기능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 고 말했다. ■

## 7-Eleven 캐나다, 커피 공짜



서 본일레븐 캐나다가 더운 음료 구입처로 부상하기 위한 새로운 판 촉전을 시작했다. 다름아닌 커피 무료 제공이다. 다만 무료로 주는 날짜 가 매달 7일과 11일 이틀로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회사명을 연상시키기 위한 깜찍한 마켓팅이라 하겠다.

자격은 7Rewards 프로그램 가입 회원들에 한하며 금년까지 한시적으 로 시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앱을 다운받아 원하는 정보를 입력하도록 돼 있으며 간단하다. 프로그램은 또, 세븐일레븐의 제휴사 - 주로 공 급 사 - 제품 혹은 회사 홍보 강화를 위해 구성된 것으로 방문 빈도 증가 를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의 야심작인 펌프킨 스파이스 라테 (Pumpkin Spice Latte), 허쉮의SKOR Hot Chocolate, Mexican Hacienda Miravalles Organic Coffee가 소개되는데 이들도 무료 제공 목록에 해당 된다. 또, 자사 상표 제품인 콜롬비아 커피(Rainforest Alliance Certified 100% Caldas Colombian Coffee)도 해당된다. 그런가 하면 11월부터는 페퍼민트 모카도 목록에 추가된다고 한다.

세븐일레븐 커피 키오스크에서 손님들은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맞춤 형 커피 주문도 가능한데 그런다고 추가로 돈을 내는 것도 아니다. 세븐 일레븐은 손으로 직접 프리미엄급 100% 아라비카 원두만 사용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일관성있고 보다 신선한 커피 만들기에 각고의 노 력을 하고 있다는 점도 부각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세븐일레븐이 부쩍 커피를 전략 상품화해서 마켓팅 에 몰입하는 것을 놓고 커피 전쟁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과제로 삼고 있 다고 평했다.■

## <sup>\$25 조합쇼핑쿠폰 무료 제공</sup> 조합 고객감사의 날 10월 23 - 24일

**협** 동조합의 격월로 개최되는 고객 감사의 날이 10월 23일과 24일 양일간 열립니다. 조합측은 이번 행사를 통해 조합원에 대한 정보 축 적과 이를 기반한 온라인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 대대적 인 작업을 순조롭게 진척시키고 조합원들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모든 조합원들에게 25불 상당의 무료 쇼핑 쿠폰을 제공합니다. 쿠폰 을 사용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본 실협뉴스 786호에 인쇄된 쿠폰 면 (13면)을 절취해 조합 쇼핑 후 대금 결제 시 계산대 조합 직원에게 제 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쿠폰에는 조합원 성명, 상호, 조합원 등록 번호, 전화번호, 이메 일 등의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하나라도 기재가 누락되면 쿠폰 사용 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 쿠폰은 고객감사의 날인 이달 23일과 24일 에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은 이 쿠폰에 기재된 정보를 토대로 정보망을 구축해서 사회관 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보다 신속한 정보 전달과 조합원의 편익 증 대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미 지난 2월에 조합의 개정된 정관에 따라 100달러 보통주 를 1달러로 과거처럼 환원했고 1달러 보통주 증서를 개별 회원들에 게 모두 발송한 바 있습니다. 기존 조합원뿐 아니라 새로 조합원이 되 신 회원들은 이번 고객감사의날 행사를 통해 무료 쿠폰도 사용하고 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향후 더욱 실속있고 편리한 쇼핑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몇차례 트레이드쇼를 통해 소개됐 고 최근 협회 회원 업소에도 담배를 공 급하는 중국계 담배 회사 '퍼스트차이

나 토바코'(FCT; First China Tobacco Company Itd. 華創烟草有限公司)가 지난 9월 28일(토) 리 치몬드힐의 중국식당 오리엔트 비스트로(Orient Bistro)에서 담배 설명회를 가졌다. 도매업계와 소매업주들을 상대로 중국 본토에서 새로 수입되 는 명품 담배들을 소개하는 자리였으며 즉석에서 특별할인 주문도 받았다. 협회에서는 조합 심기 호 부이사장이 초대돼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 를 접했다.

중국 스타일답게 수시간의 풀코스 중국 만찬

을 즐기며 소개된 담배는 모두 4종 이며 프리미엄급 의 '운연'(중국발음 원옌雲煙; 云烟)과 중저가 담배의 하 나인 아시마(중국 발음 아쉬마 阿蒜 瑪)가 집중적으로 부각됐다. 이밖에

## FCT 신제품 설명회



도 홍타산(홍타샨 紅塔山), 옥계(위시 玉溪)등이 있는데 중국 남부 운남성에 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담배들이다.

FCI가 캐나다에 친숙하게 알려지게 된 계기는 홍쌍희(紅雙喜Double Happiness Cigarettes)라는 담배의 독점 판권을 가지면서부터이다. 이 담배는 상해에서 가장 유명한 담배 중 하나다. 2012년에 창립됐고 본사는 벤쿠버에 있다. 토론토에는 영업 본부가 리치몬드힐에 소재한다. ■

#### 〈연락처〉

**First China Tobacco Company Ltd**. 55 West Beaver Creek Road, Unit53 Richmond Hill, ON Canada L4B 1K5

Tel:905-762-
8838

Fax:905-762-8839

E-mail:fct\_on@ tobaccochinese\_ com

	Price	Discount	Net Amount/ct	13% HST	Gross Amount/ct
玉溪 YuXi 20s	100.45	-12	88.45	11.50	99.95
云烟 YunYan 20s	100.45	-12	88.45	11.50	99.95
红塔山 HongTaShan 20s	90.65	-11	79.65	10.35	90.00
阿诗玛 Ashima 20s	82.53	-8	74.53	9.69	84.22



안녕하십니까 회원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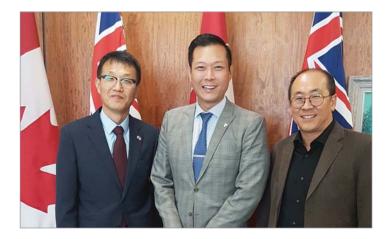
귀하의 가정과 사업체에 큰 은혜와 복이 내리기 바랍니다. 조합에서는 이번 고객감사의 날 행사를 통해 여러분과의 연락망을 구축하고 실협에서 나가는 공문과 조합의 매달 스페셜, 그리고 일년 6번하는 고객감사의 날 홍보 전단지를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회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정부 의지는 확고해, 업계가 더 큰 목소리 내달라"

## **스텐 조 의원**, 협회 위한 든든한 대변자

지 역구가 윌로우데일이며 온주 여당인 보수당 초선 한국계 스텐 조 (한국명 조성훈) 의원이 지난 10월 1일(화) 본부 협회 신재균 회장과 실 협 현안 문제를 놓고 간담회를 가졌다. 다운타운 정부 청사인 프로스 트 빌딩 7층 재무부 회의실에서 40여분 동안 진행된 면담에 조합 심기호 부 이사장이 배석했고 의원측은 보좌관 1명이 배석해 4명이 깊은 관심사를 교환했다.

협회의 최대 관심사는 OCSA이사회 미팅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편의 점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와 동일한 편의점 술판매 이슈와 베이핑 문제였 다. 모든 편의점에 주류 판매가 허용되는 시점이 역시 제일 먼저 도마에 올랐는데 조 의원에 따르면 빅 피델리에 이어 로드 필립스 재무장관도 산 하의 LCBO 그리고 민간 컨서시움인 비어스토어와 전체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깊은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협회측은 더그 포드 수상 재임시에 실행되지 못하면 편의점 술판매는 다시 기회를 맞지는 못할 것이라고 우 려감을 비쳤다. 조 의원은 수상 본인이 워낙 이 정책에 대한 강한 소신을 가지고 관철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여하한 형태로든 결실을 맺



을 것이라고 조심스레 전망했다.

조 의원은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업계와 소비자들이 정책 지지를 더 소리높여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업계의 이해관계가 걸려있 는 이슈를 관(官)이 너무 지나치게 밀어부치는 모양새는 그리 좋게만 비 쳐지지 않으며 반대쪽의 이해관계와 첨예한 대립 양상인 경우 소비자의 지지를 등에 업고 이해당사자 진영이 더 강력한 캠페인을 벌여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강력한 캠페인을 애써 벌여 판을 성사시켜놓으면 팔짱끼고 구경 만 하던 체인 편의점이 무단 편승해 실익을 누리는 일이 벌어져서는 곤란 하지 않느냐는 입장도 개진했다. 의원은 그렇다하더라도 협회 단독보다 는 유관 단체들과의 힘을 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다음으로 베이핑 제품의 판매 독식을 위한 그쪽 업계나 단체들의 로비 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편의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우면서 전문 (18면에 계속)

> 이미 임페리얼은 고 프로그램으로 인한 소매업소의 스트레스를 덜기 위한 정책 변 화를 시도했고 특히 협회를 위해서는 한국 계 직원을 통해 지구협회장 회의까지 개최 해 자세한 설명을 했을 뿐 아니라 담뱃갑 포 장통일화정책에 대비할 요점정리까지 해준 바 있다. 바로 직후에 현장 방문을 통해 이 같은 사전 교육까지 제공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원들이 하등 거북스런 감정을 이 들에게 표출할 이유가 없다.

강제적인 담뱃장 공간 할당을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위치의 플레노그램을 강요하 는 것도 아니며 기존 회원이 배정한 임페리 얼담배 할당 공간을 전제하고 그 범위에서 담배 위치를 용이하게 파악해서 초기 시행 착오를 줄이자는 취지이므로 오히려 우리 쪽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한다.■

## 담뱃갑 포장 <mark>통일화 정책</mark> 대비

공급사 서비스 지원에 협조적 자세로 임해야 **임**페리얼 토바코가 내년 2월부터 시행 에 들어가는 연방 담뱃갑포장통일화 정책 에 부응하기 위한 발빠른 대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한달 전부터 업소 현장 방문을 통해 담배 위치 파악에 도움이 되는 일종의 위치인식 표지물을 제공하며 사전 교육 훈 련 기회를 제공 중이다.

대부분의 회원들이 나름 쓸모가 있는 자료 이자 보조 수단이라고 여기고 협조적인 자 세로 임페리얼 직원을 맞고 있는데 극히 일 부 회원들이 불필요한 적대감을 표출하거 나시비를 유발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회사측에 따르면 모 회원은 회사측이 제 공하는 위치 안내 스티커 표지물때문에 정 부 단속반에 걸려 벌금을 수백달러 물었다 며 불만을 유포하는데 이는 가짜뉴스로 밝 혀졌다고 한다.

## 모국 전자담배 매출 지칠줄 모르는 증가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 와중



▲ 액상형 전자담배의 지존 쥬울보다도 한수위라며 맹렬한 광고 판촉을 하고 있는 '버블몬'이라는 제품. 6월에 출시돼 8월에 50배 넘는 매출을 기록했다.

모국의 전자담배 광고를 보면 "상큼하다", "목넘김이 좋다" 등등 온갖 유혹적 표현이 넘쳐난다. 특히 액상형(liquid) 전자담배는 종류도 무척 많 아졌고 매출도 크게 늘어났다. 그런데 한국은 현행법상 상당수의 전자 담 배가 담배로 분류되지 않고 있어 많은 규제에서 자유롭다. 편의점에도 이 런 저런 다양한 전자 담배 제품들이 빼곡히 진열돼 있다. 여기와 마찬가지 로 한국 편의점에도 쥬울이 가장 많이 공간을 점령하고 있다. 업주나 종업 원들은 계속 진열대에서 없어져서 채워넣기 바쁘다고 한다. 퇴근 길에 여 자들도 많이 사는 편이라고 하는데 소비 트랜드에 대한 답변의 목소리에 즐거움이 생생히 느껴진다.

이런 가운데 한 전자담배의 매출이 화제다. 지난 6월에 출시된 이 제품 은 젊은층에게 인기를 끌면서 출시된 그 달에 14,000개가 팔리고 7월에 10배인 101,000개, 그리고 8월이 되자 684,000개로 눈덩이 처럼 매출이 불어났다. 한마디로 대박상품이다. 불과 2개월 사이에 매출이 50배로 뛰 었다.(사진 참조)

그런데 이 제품은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다. 담뱃잎이 아니라 담배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바탕으로 전자담배를 제조했기 때문에 담뱃잎을 원료로 할 때만 담배로 분류되는 법의 헛점을 기막히게 이용했 다. 연초의 줄기나 뿌리를 원료로 액기스를 뽑아 담배제품을 만들어도 담 배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실내에서 피워도 법으로 통제할 수 없고(10만 원 과태료 부과 불능) 제품 표면에 금연 그래픽이나 건강 경고문구를 넣 지 않아도 된다.

세금도큰 혜택을 누린다. 일반 담배의 경우 한갑 당 4,500원짜리에는 개 별 소비세 등 다섯 종의 세금이 부과돼 총 담뱃세는 3,320원을 차지한다. 그러나 이 신종 담배는 기계값을 포함해 일반 담배 2갑에 해당하는 소비 량을 즐기면서도 8,500원에 불과하며 관세와 부가가치세만 내면담배 명 목의 세금은 없다. 일반 상품처럼 취급되는 것이다. 이런 불합리를 시정 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정쟁으로 국회가 파행을 겪 다보니 잠자고 있는 실정이다.

#### NATURE 사설

"유무해 콕찍어 입증아직안돼"

이왕 법의 헛점을 노린 전자담배의 모국 실상을 언급했으니 글로벌 차 원의 전자담배에 대한 포괄적 현황을 짚어보기 위해 이하 최근 Nature지 에 실린 사설 내용을 소개한다.

『지난 50여년 동안 '담배가 사람 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만 흡연은 지금도 매년 8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다. 이는 전적으로 예방 가능한 '최악의 공중보건 비상사태' 이므로, 이 문 제를 해결할 참신한 방법 이 절실히 요망된다.

그러므로 전자담배가 가능성있는 해결책으로 주목을 받아온 건 별로 놀 랍지 않다. 미국의 성인 흡연자 중 절반 이상은 해마다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전자담배는 이론적으로 금연의 성공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전자담배 흡입(vaping)은 전통적인 흡연(smoking)보다 안전 하다"는 것이 통설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전자담배 매출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2018년 전자담배 의 글로벌 시장규모는 미화 113 억 달러였다) 우려가 버섯구름처럼 피어 나고 있으며, 연구자들은 이를 불식시키는 데 실패해 왔다. 전자 담배에 대한 긴급의문은 다음과 같다. ① "전자담배가 정말로 금연에 도움이 될 까?" ② "금연은 커녕 흡연 의 가교(架橋gateway)가 되는 건 아닐까?" ③ " 액상형태가 장단기적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 아닐까?" 이 세 가 지 의문들이 해결될 때까지 전자담배 사용을 강력히 옹호하는 것은 성급 (18면에 계속)

October 9, 2019 / 786 15

#### 런 비용을 투자하고 서비스의 적절성을 보장하기 위해 맥 패일은 일반경 바로 이런 경우를 상정하고 기발한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어 이 비를 줄일 몇가지 방법을 모색했다. 그 중 하나가 가로 세로 8인치x 10피

니 홈이다. 토론토 다운타운 던다스와 배드허스트 교차 부근에 컨테이너 형태로 있다.

자기 늦은 밤에 초콜렛 한입 먹고 싶어진다든가 짭짤한 스낵을 우적거리 고 싶다든가 하는데 공교롭게 집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면? 이런 경

우는 우리로 치면 한밤중에 출출할 때, 라면 하나를 맛있게 끓여먹으며 해

결하는데 마침 라면이 똑 떨어졌다고 상상해보면 감이 올 것이다. 물론 잠

깐이지만차를 몰고 한밤중에 근처 편의점을 찾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얼마

를 소개해본다. 스내코(Snacko)라는 상호의 편의점인데 캐나다에서 오 직 배달서비스로만 운영하는 편의점 1호에 꼽히지 않을까 싶다. 작년 늦 여름(8월 27일)에 시작한 사업으로 소형 공간을 활용해 재고 창고로 사용 할 뿐이며 앱을 통해 주문받아서 집이나 원하는 장소로 배달만 하는 편 의점이다.

16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나 번거롭고 귀찮은 노릇인가.

구 토론토, 리틀 이태리, 차이나타운 등이 인접해있는 지역민들이 갑

관심이 집중되는 순간이었다.

코노 맥패일이라는 젊은이가 작년 여름부터 시작한 사업인 스내코 편 의점은 가상의 현실과 전통 편의점 을 접목시킨 컨셉이다. 앱에 기반해 음식 주문배달을 하는 업체 우버 이 츠(Uber Ests)의 고객관리 매니저이 기도 한 맥패일씨는 이 새로운 모델 의 편의점에 대해 의존도가 어느정 도나 될 것인가를 최우선적으로 확 인했다. "음식 배달업계 전반을 파 악했고 이 분야가 현재 얼마나 빠 른 속도로 발전해나가고 있는지를 알게 됐다."

그는 또 두가지를 기민하게 관찰 했다. 첫째는 디저트 메뉴는 아직까 지서비스가 크게 발전하지 못한 영 역이라는 사실이고 두번째는 한밤 중의 음식 배달이 아직까지는 일상 화돼있지 못하는 점이다. 나아가 그 는 레스토랑이 단지 배달 서비스에 만 그칠 뿐이라는 점에도 주목했다.

개인적인 통찰력과 앞서가는 조사기법 등이 동원된 끝에 마침내 그는

스내코를 오픈할 수 있었다. 현장이 없는 편의점! 거래 과정은 우버 이츠,

푸도라(foodora), 스킵더디쉬(Skip the Dishes)같은 음식 배달 서 비스와

동일하다. 불과 수초만에 주문은 완료된다. 주문을 건네받고 배달기사가

주문한 물건을 싣고 주문 자의 수령처를 방문해서 전달한다. 상품기획관

트의 협소한 컨테이너에 물건 창고를 만드는 것이었다. 나름의 경제적인

물류기지가 꾸려지는 것이다. 그 안에 상품별 반투명 박스가 정리돼 있는

데 여기서 배달할 물건이 정리 포장된다. 이런 설비는 별도의 공간을 가

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에 비치돼 있다. 별도의 업소 공간 대신 자기 집

이 업소가 되는 셈이다. 방문하는 손님이 없으니 신경쓸 일이 없다. 재고

20대 젊은 사장의 실용적 아이디어 결실 '배달'만 하는 가상의 편의점



▲ 자신의 집이자 편의점 재고 창고이기도 한 코노 맥패일씨의 편의점. 8피트x 10피트의 매우 작은 미니 비즈니스 미



▲ 배달만 하는 신개념 편의점 스내코의 웹사이트 초기화면

관리 상품기획만이 그가 할 모든 일이다. 스낵류는 종류가 워낙 많고 점 점더다양해지며 크기도 자꾸 커지고 있다. 가상 공간 선반에서 고객들은 쿠키도 고르고 다양한 칩스도 고를 수 있다. 여기에는 Pop Tarts Cookies, Golden Oreos, Ring Pop, Maynards Cherry Blasters 등 최고 인기 주전 부리들이 포함돼 있다. 맥패일은 다른 편의점 공간에서 보 기 힘든 아이 템에 주력한다.

맥패일은 올해 24세의 청년이다. 지역 특산물 제조사로부터 최근에 초 콜랫칩 쿠키도우를 공급받아 판매 목록에 올렸는데 이처럼 특정 지역에 한정된유통을 하는 특화 상품 공급사와의 제휴 강화가 그의 비즈 니스 철 학이다. 스몰 비즈니스끼리의 공생은 상생의 교두보라는 것이다. 그는 마 켓테스팅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고객으로부터의 반향에 귀를 기울인다. 몇가지 주목할 것들이 늘 발견된다. "사람들이 생수를 그렇게 많이 주문 하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 어떤 고객들은 물을 10병이나 주문하고는 한 다." 스내코에서 생수 한병에 1.49달러인데 이는 일반 오프라인 편의점에 들러도 유사한 가격이다.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가격을 계속 내린다는데 그의 표현대로 하면 이 업소는 편리성 (convenience)을 판매하는 것이다.

가상공간과 배달서비스만 전문으로 하는 이특별한 편의점 모델하에서 는 새로운 주전부리 상품을 추가하는 일은 아주 쉽다. 맥패일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이 모델 컨셉에서 가장 매력적인 대목이 매뉴 업데 이트를 쉽 게 끊임없이 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이다. 피드백 또한 금방금방 이루어진 다." 현재 그의 비즈니스 는 고객들의 씀씀이가 넉넉해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다. 두명의 파트타임 종업원을 쓰고 있는데 한번 이용한 고객들은 계속 이용하며 요즘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딱 맞아떨어지는 비즈니 스모델을 시작 한 것이다.

온라인 쇼핑의 편리성은 이제 상당한 경지에 이르렀다. SNS를 통한 손 쉬운 주문, 결제, 배달 서비스 받 기에 이르는 과정이 매끄럽다. 우버이츠 의 독보적인 우월적 지위 덕분에 스내코와 같은 편의점 서비스도 최소한 토론토 다운타운 지역에서는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SNS는 기존고 객사수와 새고객 창출에 결정적 기여를 하고 있고 실제로 업계의 활용도 는 무척 활발하다. 한창 고무된 젊은이 맥패일은 꿈에 부풀어 이렇게 말 한다. "시장 확대 방안을 열심히 모색하고 있다. 우리의 서비스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 에게 전해지기를 기대한다."

영업시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오후 3시부터 밤 12까지, 금요일 은 오후 3시부터 새벽 2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 요일은 오후 5시부터 밤 12시까지 요일별로 주문 배달 시간대가 다양하 다. 싸이트는 www.snacko.ca이다.■

## www.okbacanada.com 협회 웹 주소 **변경 예정**

협회 웹사이트가 새 단장을 하며 주소도 바뀔 예정이다. 현재 의 주소는 www.okba.net 이며 앞으로 변경될 주소는 www. okbacanada.com이다. 사실 지금도 새 주소로 방문 해도 기존 주소와 동일한 내용을 볼 수 있다. 다만 과도기적으로 두사 이트가 동시에 운영될뿐이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기존의 주소는 영원히 사라진다.■



#### (15면에 이어〉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 와중

하며, 규제당국자 들은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흡입을 제한할 지침을 시급 히 마련해야 한다.

올해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NEJM)》에 실린 논문 한 편 이 증거의 갭을 부각시켰다. 연구 진은 대규모 무작위 대조시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에서…(중략)… 전반적으로 볼 때, 그 연구는 "전자담 배가 다른 금연전략(예: 니코틴 대체요법 + 항우울제)보다 우월하다'는 주 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또한 최근의 연구들이 (전자담배가 신속히 변화하고 있는) 현실세계에 적용될 지도 의문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의 전자담배 사용자들은 EU 의 니코틴 농도 법정 한계'의 3배에 달하는 니코틴을 함유한 전자 담배 를 선호해 왔다. 예컨대, 인기있는 전자담배 중에서 농도가 가장 높은 쥴 (Juul)의 제품은 '담배 한 갑 (20개비)'에 상당하는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전자담배 흡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며, 공 격적인 마케팅 캠페인에 의해 뒷받 침되는 '잠재적 탐닉성'도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2017-2018년 사이에 미국 고등학생들(14-18세)의 전자담 배 사용은 무려 78%나 증가했다. 다섯 명 당 한 명의 고등학생들(그리고 전형적으로 11-13세인 중학생들의 경우에는 스무 명 당 한 명)은 최근 1 개월 동안 한 번 이상 전자담배를 사용해 봤다고 한다.

이건 심각한 건강상 우려를 자아낼 수 있는 문제다. 많은 연구들에 따르 면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청소년 들은 진짜담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고 하지만, 인과관계는 확립되지 않았다. 그리고 전자담배(특히 고농도 니코틴을 함유한 전자담배)가 젊은이들의 뇌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은 아 직 밝혀지지 않았다.

데이터가 이처럼 빈약한 상황에서, 전자담배를 둘러싼 연구자들의 논쟁 은 대립적이고 때때로 감정적이 었다. 전자담배의 옹호자들은 "전자담배 를 이용하여 금연을 시도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담배의 심각한 폐해를 저지할 수 있다"고 낙관한다. 전자담배의 비판론자들은(그들 중 일부는 전자담배를 비관하는 대중 연설을 행한 후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한다)" 수십 년간 구축한 '담배와의 전쟁'의 교두보를 상실하고, 새 로운 '전자담 배 중독자 세대'를 창조할 수 있다"고 걱정하며, 빅 토바코(Big Tobacco: 5大 글로벌 담배 회사)의 유령이 부활하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담배업 계의 거인이자 말보로의 메이커인 알트리아 (Altria: 버지니아 주 리치몬 드)가 작년에 쥴의 지분을 35%를 인수하면서 이런 공포감에 더욱 부채 질을 했다.

'담배가 폐암을 초래한다'고 보고한 연구들은 담배를 '공중보건의 적'으 로 규정한 바 있다. 이제 연구자, 연구비 지원기관, 공중보건 기관, 정책 입안자들은 일치단결하여 '고품질 연구'를 설계하여 기존의 연구 결과를 재현함으로써, 전자담배에 대한 의문을 해결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차세 대 니코틴제품의 등장 가능성을 검토하는 일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어떤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담배 제조사들이 제품의 전압을 상승시킴 으로써, 액상 니코틴의 함량을 증 가시키지 않으면서 니코틴 전달량을 증 가시킬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EU의 니코틴 함량 제 한을 회 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그리고 다른 유형의 제품들이 해외에서 온라 인으로 수입되고 있다. 예컨대 일본의 흡연자들은 (기존의 담배를 태우지 않고 가열하는 방식의) 전자 담배 제품(\*궐련형 전자 담배)을 점점 더 많 이 사용하고 있는데, 미국식품의약국(FDA)은 지난 4월 그런 제품을 최초 로 승인한 바 있다.

전자담배에 관한 올바른 정책(위험을 최소화하는 정책)은 '증거'와 '공동 연구'에 기반해야지, '의견과 '독 설'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전자담배가 흡연자의 금연을 돕는 데 있어서 큰 성과를 거둘 것이다"라고 주 장하는 것은 아직 성급하다. 지금이야말로 규제당국자들이 나서서 다음 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적기(邇期) 이다』

#### 〈14면에 이어〉

#### 스텐 조 의원, 협회 위한 든든한 대변자

베이핑 업체들만 유리한 지형을 만들겠다는 책략에 정치인들이 휘둘려서는 안된다는 경계심을 전한 것이다. 편의점 업계가 지 난 여러해동안 보여준 연령확인 성실도의 높은 점수는 이미 입 증됐으며 협회만 놓고 보면 성실도는 거의 98%를 기록하고 있 음도 강조했다.

협회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편의점 실태 자체를 성 장과정에서부터 익히 체험해온 터라 의원 입장에서 특별히 이 해못할 영역은 없어서 대화는 막힘없이 흘렀다. 불법담배에 대 해서도 퀘벡 정책을 밴치 마킹해서 보다 강력하고 단호한 응징 책을 구사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련 참고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 다는 말도 덧붙였다.

조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이례적으로 권한이 막강한 재경위 소속으로 활동했으며 현재도 재무장관 의정담당 보좌 의원 역 할을 하고 있다. 사무실은 앞서 말한 재무부 건물 7층에 있고 지 구당 사무실은 노스욕 쉐퍼드에 있다. (지구당 사무실 연락처Tel 416-733-7878 이메일stan.cho@pc.ola.org)■

#### DIRECTORY

#### ■ KBA 협동조합

169 The West Mall, Etobicoke (협동조합 사무실) ----- (416) 789-7544 169-175 The West Mall, Etobicoke (협동조합 웨스트몰지점) ----- (416) 867-1444

#### ■ 복권관련

AGCO (복권 판매 라이센스 관련) - - - -(416) 326-8700 (800) 522-2876 Fax (416) 326-5555 OLG - - - - - -(800) 387-0104

#### ■ 음료

Coca Cola Bottling Company	(800) 241-2653
Pepsi Bottling Corp	(905) 568-7909
	(800) 387-8400
Saint Jimmy's Coffee Service	(416) 250-9427

#### ■ 우유

SAPUTO(Neilson Dairy	()	(800) 663-4724
----------------------	----	----------------

#### ■스넥

Frito Lay Canada	-(905) 460-2414
South Cove	- (905) 829-3666
Conagra Brands Canada	- (416) 679-4200

#### ■ 샌드위치

Classic group of companies - - - - - (905) 470-1926 A Biz Gourmet(Shirley 부사장) - - - - (416) 665-1052

#### Meat Jerky

Great Canadian Meat	(905) 666-9395
Conagra	1- (888) 639-7868

#### ■ 쵸코렛 / 캔디

Nestle Chocolate (800) 500-5634
Mars Canada Inc (800) 565-0147
Hershey Canada Inc (800) 268-1304
Mondelez(Cadbury/Christie) (855) 535-5648
Wrigley Canada (416) 442-3298

#### ■ 아이스크림

Nestle Ice Cream	(905) 458-3600	
	Ontario (800) 500-5634	

#### ATM / Debit

Touch Cash	)
Moneris Solutions 1- (877) 789-5335	5
1Solution	

#### ■ 잡지

Metro 360	(416) 285-2050
News Group	(905) 681-1113

#### ■ 법률관련

변호사 이영동 (905	) 272-4339
Best Defence (아담 유) (416	) 739-8887

#### ■ 금융 / 회계 / 재정 / 보험

Bank of Canada(위조지페 관련문의) - (888) 513-8212
신한은행 (416) 250-3550
외환은행 (416) 222-5200
이방록(회계사) (416) 221-2009
박효진(보험중개인)(416) 985-5287

#### ■ 언론사

한국일보	(416) 787-1111
중앙일보	(416) 736-0736
Globe and Mail	(800) 387-5400
National Post	(416) 383-2500
Toronto Star	(416) 367-4500
Toronto Sun	(800) 668-0786

#### ■ 장비 설치 수리

종합캐쉬레지스터	(416) 622-2255
프로캐쉬레지스터	(416) 804-4075
Cool Air Cleaning	(416) 224-0020
Hi Cool Tech	(416) 909-7114

#### ■ 광고 미디어 전문 대행 회사

Adapt Media - - - - - - - - - (416) 856-4466

#### ■ 기타

Kocom	(416) 769-3532
DSC Digital System	(416) 255-6549
David Health International	(647) 726-1010
허바헬스	(416) 435-5754
365 Wholesale	(416) 931-9002
Butterfly Fashion	(416) 785-5999
The Best Inventory Service	(905) 359-8560
원도매상	(416) 661-6664
DavidWholeSale	(416) 419-3751
78 Trading	(437) 777-7878
Yeno Trading	(647) 967-6561
용역 회사 Tyson Lee	(647) 545-0922
Atlantic Prepaid Card	(888) 479-7779







Heinz Tomato Juice 1.36L Reg.\$2.49 Spe.\$1.49



19 Allen's Apple Juice 1.05L Reg.\$1.35 Spe.\$1.19



RedBull 24/250ml Original Only Reg.\$42.99 Spe.\$35.99



McCain

French Fries 900g Reg.\$2.69 Spe.\$1.99 Xtra Crispy Fries 650g Reg.3.09 Spe.\$2.49 Premium Super Fries 650g Reg.\$3.09 Spe.\$2.49 Xtra Crisp Seasoned Fries 650g Reg.3.09 Spe.\$2.49 Deep'n Delicious Cakes 510g Reg.4.79 Spe.\$3.99 Deep'n Delicious Fruit Pies 680g Reg.4.79 Spe.\$3.99 Delicious Cream Pies 400g Reg.4.79 Spe.\$3.99 Pizza Pocket 3pack Reg.3.49 Spe.\$2.49



Sara Lee Cheese cake 538g Strawberry & Cherry Reg.\$4.99 Spe.\$3.59 Oven fresh Pies 1.04kg All Flavours Reg.\$5.29 Spe.\$3.59 Pound Cake 304g Reg.\$3.59 Spe.\$2.79 Cream Pies 55g - 765g All Flavours Reg.\$6.99 Spe.\$4.69



Vidal Candy 1.2kg All Flavours Reg.\$7.49 Spe.\$6.49



**Real Sours & Real Fruit Gummies** 140g-180g Reg.\$2.05 Spe.\$1.85 Traditional Pegtop Candy 200g-250g Jubes, Jelly, Beans, Scotchmints, Spearmints Reg.\$1.89 Spe.\$1.69



Maynards Singles 44-60g All Flavours Reg.\$16.89 Spe.\$15.79 Maynard Small Bag 17-185g All Flavours Reg.\$1.89 Spe.\$1.69



#### Regal

Surprise Bags 75g Reg.\$31.59 Spe.\$28.69 Charms Super Blow Pops Reg.\$11.89 Spe.\$10.89 Charms Super Blow Pops Sweet N Sour Reg.\$11.89 Spe.\$10.89 Baby Bottle Gummy Blast Reg.\$14.49 Spe.\$12.69





Clif Bar 68g All Flavours Reg.14.39 Spe.\$12.75 Clif Builders Bars 68g All Flavours Reg.16.69 Spe.\$14.99



Brand Strategy Popcorners 142g All Flavours Reg.\$2.05 Spe.\$1.89



Wholesome Goodness Riceworks 155g All Flavours Reg.\$2.39 Spe.\$2.09



Hunts Pasta Sauce 680ml All Flavours Reg.\$1.99 Spe.\$1.19



99

Green Giant Canned Vegetables 341~398ml All Kinds Reg.\$1.49 Spe.\$0.99



SPAM

Spe.\$3.09

All Flavours Reg.\$3.29

Campbells

Red & White Soup 284ml All Flavours Reg.\$1.69 Spe.\$1.39 Ready to Serve Red and White 540ml All flavours Reg.\$2.49 Spe.\$1.79 Chunky Soup 540ml All Flavours Reg.\$3.05 Spe.\$2.15 Chunky Chili 425g All Flavours Reg.\$2.55 Spe.\$2.29 Tetra Broth 900ml All Flavours Reg.\$2.50 Spe.\$1.99 Franco American Gravy 284ml All Flavours Reg.\$1.45 Spe.\$0.99 Cup Noodles 55g All Flavours Reg.\$15.85 Spe.\$12.95



#### Lindt Sprungli

Lindt Excellence Chocolate 100g All Flavours Reg.\$3.29 Spe.\$2.75 Lindt Classic Chocolate 100g All Flavours Reg.\$2.69 Spe.\$1.99 Lindor Singles 36g All Flavours Reg.\$23.25 Spe.\$17.79 Ricola Bag 75g All Flavours Reg.\$2.49 Spe.\$1.89 Ricola Sticks All Flavours Reg.\$27.69 Spe.\$21.99



Olive Oil 250ml Classico & Extra Light Reg.\$3.55 Spe.\$3.29 Olive Oil 250ml Extra Virgin Reg.\$3.75 Spe.\$3.29 Olive Oil 500ml Classico & Extra Light Reg.\$5.25 Spe.\$3.99 Olive Oil 500ml Extra Virgin Reg.\$5.55 Spe.\$3.99

Dips

Cascades



Cello Pasta 450g All kinds Reg.1.19 Spe.\$0.99 Bronze Selection Box 450g All kinds Reg.1.35 Spe.\$1.09 Bauli Croissants 300g Chocolate & Vanilla Reg.2.29 Spe.\$2.09

**Nestle Purina** 

Reg.\$17.45 Spe.\$14.79 Friskies Wet Cat 368g All Flavour

Reg.\$1.19 Spe.\$0.99

Reg.\$3.15 Spe.\$2.79

Friskies Wet Cat 24/156g All Flavour

Beggin Strips Dog Treats 170g All Flavours



Sugar Twin Packets 50's Reg.\$1.49 Spe.\$1.39 Sugar Twin Packets 100's Reg.\$2.85 Spe.\$2.59



**Fishermans Friend** Fishermans Friend 16's All Flavours Reg.\$23.99 Spe.\$21.49 Fishermans Friend 24's All Flavours Reg.\$35.89 Spe.\$32.49



5 Philadelphia

Reg.\$3.99 Spe.\$3.25 Philadelphia Dip 227g All flavours Reg.\$3.55 Spe.\$2.55

Soft Cream Cheese 227q All flavours

55



April Soft Bathroom Tissue 4's Reg.\$21.49 Spe.\$19.49 Fiesta Paper Towel 2'S Reg.\$19.99 Spe.\$17.99



#### TAMPAX TAMPAX TAMPAX TAMPAX

#### Tampax

Regular 10's Reg.\$16.89 Spe.\$15.19 Super 10's Reg.\$16.89 Spe.\$15.19 Super Plus 10's Reg.\$16.89 Spe.\$15.19

> 3.95 2.95 3.95 3.95 3.95 3.95 2.95 3.95

3.95 3.95 Smuckers DLM

ILK-BONE

PUP-peroni 75g All Flavours Reg.\$1.79 Spe.\$1.59 PUP-peroni 158g All Flavours Reg.\$2.75 Spe.\$2.45 Jerky Treats 170g All Flavours Reg.\$2.75 Spe.\$2.49 Alley Cat 2kg Reg.\$3.69 Spe.\$3.29 Meow Mix Original Choice 500g Reg.\$2.25 Spe.\$1.89

Meow Mix Original Choice 2kg Reg.\$6.49 Spe.\$5.39 Milkbone 113g All Flavours Reg.\$1.85 Spe.\$1.59

Dundas St	. w
Paxman Rd.	HWY 427
West Mall B	tranch

#### 169 The West Mall, Etobicoke T(416)867-1444 / F(416)789-5013

#### **Business Hours**

Mon.	06:30 - 17:00
Tue.	06:30 - 17:00
Wed.	06:30 - 17:00
Thur.	06:30 - 17:00
Fri.	06:30 - 17:00
Sat.	06:30 - 16:00
Sun.	11:00 - 17:00

# Always

Always Ultra Slender w/ Flexi-wings 18's	4.69	
Always Ultra Regular Thin w/ Flexi Wings 10's	3.09	
Always Ultra Overnight w Flexi Wings 14's	4.69	
Always Ultra Regular w/ Flexi Wings 18's	4.69	
Always Thin Ultra Long w/ Flexi wings 16's	4.69	
Always Ultra Regular 22's	4.69	
Always Thin Maxi Regular w/Flexi wings 10's	3.09	
Always Ultra Thin Long w/ Flexi wings 14's	4.69	
Always Ultra Thin Reg 16's	4.69	
Always Ultra Thin Long 20's	4.69	





## 2019 **10.6~11.2**

Frito Lay Canada에서는 2019년 10월 6일부터 2019년 11월 2일까지 클럽 골드 회원, 플래티넘 회원, 다이아몬드 회원에게 스페셜을 실시하오니 방문하는 판매 담당자 또는 드라이버에게 문의하세요. 4주 한정기간 동안 프로모션이 있으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스페셜 상품들은 OKBA프로그램 스토어에도 적용됩니다.



Doritos 2/\$7

Ruffles 2/\$7



## 2/\$3 Doritos / Ruffles



FritoLay

od for the fu

■최소 주문량 \$50 ■ 다양한 제품 오더 가능 (Single Serve, Take Home, Convenience Food, etc) ■직접 재고 관리 가능 ■필요할 때마다 주문 가능 (무료 배달/주문 후 이틀안에 배달 완료) ■충분한 유효기간 (창고에서 직접 포장) ■ Single Serve는 Snack to you를 통해 주문 가능합니다.

Online at snackstoyoucanada.ca or Phone 1-866-404-8881

Happiness is simple'